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예수성심 찬양은 그리스도교  
 신심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요,  
 모든 신자가 질 의무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다”  
 -레오 13세-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 쫘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사도 1,1-11	제2독서: 에페 1,17-23	복음: 루카 24,46-53
가톨릭 성가	입당: 137	봉헌: 146
		성체: 194
		파견: 202

◆ 화답송



(후렴) 환호소리가운데 하나님이오르신 다. 나팔소리가운데 주님이오르신 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증인을 찾습니다”

“지난 밤, 사고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찾습니다.”

성당 앞 사거리에서 종종 보게 되는 현수막의 문구다. 증인은 그럴 듯한 말 재주나 권력, 또는 실수에 의해 내려질 수 있는 잘못된 판결도 단번에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비중이 크다. 그러니 증인을 찾는 이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당 안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는 듯하다. “증인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행복의 원천임을 체험한 분!” 예수님이 걸어놓으신 것 같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저마다 힘과 돈이 최고며 행복의 원천이라고 소리치니 점점 그 소리들이 진짜가 되어가는 판국이다. 그리스도인들조차 혼란스럽다.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정말 행복할까?” 그래서 더욱 증인을 찾는 예수님은 안달이 나셨다.

“하나님 때문에 대박난 사람들” 어디 없을까? 물질만능주의와 자기중심주의 세상과의 재판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는 소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점점 궁지로 몰리시는 것 같다. 그 판세를 뒤엎을 만한 진짜 증인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한 사람 말이다

한 주간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대박이 오는지 그 멋진 체험을 시작해보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찾는 이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나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예수 성심 성월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응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 미 사 봉 헌

● 연미사

민병택 베드로  
이영우, 이태묘  
박성길, 여성순  
김용각  
유형일  
이성범 안드레아  
강창성

봉헌

가축  
이상홍 스테파노  
박정자 로사  
박명심 모니카  
유희순 그레이스  
연령희  
강해숙 바울라

● 생미사

박재호 베네딕도  
유정옥 유스티나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이재호 클레멘트, 김옥지 아가다  
전마지 마가렛, 강건대 마리아  
박연희

김성중 다두 부부  
본당  
양미숙 마리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박순 로사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대방인쇄 K&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b/t 40&41st)  
212.203.0072(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6월 2일	주세정 레이첼	안상민 그레고리오	김희진 마르가리타	양소영 엘리사벳	김예슬 아녜스	박희정 안효준	박지현 홍찬	이영혜 신정목 이경자(울) 김효진 이경자(벨) 이서원 강호영 이경숙
6월 9일	김영희 안나	조남록 미카엘	민재인 데레사	임금중 마가렛	박민재 아그네스	이규완 박기욱	이미진 홍명	김창훈 박정자 채미재 이영혜 신윤길 신애송 박기욱 박민재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울뜨레아회**가 오늘 **성령기도회**와 함께 야외행사를 합니다. 미사 후 출발하며, 장소는 Ross Dock Picnic Area(GWB아래 #Lot1)입니다.

➢ **학부모회**가 11시, 교육관 3호실에서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 6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12일만 휴강)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30일만 휴강)	오후 1시30분~2시50분	

➢ 바자회 경품 확인 및 수령안내

prize	No.	name
4 <sup>th</sup> prize	01155	여선구
5 <sup>th</sup> prize	11023	김지영 마리로사
6 <sup>th</sup> prize	11420	김영희 안나
7 <sup>th</sup> prize	06789	임종혁

\*6월 30일(주일)까지 수령하지 않는 상품은 무효처리 됩니다.\*

➢ 바자회 추진 위원 회의

일시 : 오늘 11시 / 장소 : 2층 컨퍼런스 룸

➢ 첫 고백 안내

일시 및 장소 : 6월 매주일 8:40am/ 아래성당 고백소  
대상 : 지난 파스카 성야 때 세례견진을 동시에 받은 분들  
첫 고백은 세례 후 교회의 깊은 관심 속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연결하는 전례입니다.  
대부모님께서서는 신앙의 자녀들이 첫 고백을 통해 사랑과 용서의 삶을 내면화시키고,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밖에는.  
그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당신의 손밖에는.  
그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밖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로 뛰어다니시며 선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빌라의 성 테레사

➢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6.1 유스티노 6.5 보니파시오 6.9 에프렘 6.11 바르나바  
6.13 파도바의 안토니오 6.15 켈마나 6.16 루갈다  
6.19 로무알도, 율리아나 6.21 알로이시오 6.22 토마스모어  
6.24 세례자요한 6.27 치릴로 6.28 이레네오, 마르셀라  
6.29 베드로, 바오로

➢ ‘처음처럼’ 성가대 단원 모집

청년성가대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성현 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2019 봄학기 주일학교 방학식

일시 : 오늘 미사 후

➢ 주일학교 교사 모집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stfrancisks@gmail.com)

➢ 2019년 성지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파티마, 프랑스 루르드(3개국)”

일시 : 2019년 9월9일(월) - 9월19일(목)(10박 11일)  
순례지 : 마드리드-톨레도-아빌라-알바 데 토르메스-  
살라망카-파티마-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레온-  
로올라-루르드-사라고사-몬세라트-바르셀로나  
인솔사제 : 김성인 미카엘  
참가경비 : \$ 2,900 예약금 \$500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1,930
감사헌금	\$ 100
합 계	\$ 2,030

❖ 교무금 :

오인희 김성중 유정옥 민선기 제갈경희 안상민 민완준  
이현옥 박아영 김행자 서지석 김영빈 이정진 주현경  
유희순 김성모 강순기 손명희 강건대

❖ 감사 헌금 :

유혜상

❖ 꽃 봉헌 : \$20

노혜영

**“성경 맛들이기” - 사무엘기**

**사무엘기는**

룻기 다음에 나오지만 이야기의 흐름상 판관기에 이어지는 역사서이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움으로써 왕조시대가 시작되어 꼴을 갖추게 되는 일련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왕정 제도의 도입상황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 사무엘은 ‘그의 이름은 하느님이다’ 또는 ‘하느님의 이름’이란 뜻을 지닌다. 그는 에프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 엘카나와 한나가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이었다. 그는 라마를 비롯한 여러 곳에 예언자 학교를 세우고, 마지막 판관으로서 군사 지도자, 예언적 기능, 제사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였다. 그 후 주변 국가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들을 이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해 오자 하느님의 분부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결별한 후,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결국 사무엘은 판관시대와 왕조 시대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한 셈이다.

**사무엘기 이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왕정이 도입되는데 중심 역할을 한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을 책의 명칭으로 삼았다.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상권의 주인공은 될 수 있지만 하권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열왕기 상. 하와 함께 묶어서 열왕기 1. 2. 3. 4 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곧 열왕기 1. 2권이 각각 사무엘 상. 하권에 해당되는 셈이다(불가타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본래 한 권이었던 사무엘기의 분량이 너무 많아, 그리스어 성경에서 사울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하여 상. 하로 구분한 뒤부터 두 권이 되었다.

**저자**

유다 랍비들의 탈무드 전승에서는 이 책을 사무엘 자신의 작품으로 보지만, 사무엘의 죽음(1사무 25,1 ; 28,3)과 그 이후의 일들이 이 책의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사무엘 저작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사무엘 기에는 사무엘과 사울, 다윗의 일생을 통해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을 강조하는 내용이 부각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상은 신명기적 사고의 축을 이루는 주제이다. 따라서 사무엘기는 신명기계 역사가들의 작품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집필 연대**

작품 안에 다윗 왕조와 관련된 전승이 비교적 상세히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부분이 일차적으로 기록되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시작된 문서화 과정은 유배 중에 신명기계 학자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편집된다.

**집필 목적**

사무엘기는 왕정이 도입되어 실시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방민족의 침입을 막기에는 판관체제가 아닌, 더 강력한 왕정체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왕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가 나란히 묘사되어 있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곧 사울과 다윗이었다.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없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따랐던 다윗 왕조는 굳건히 서지만, 그 말씀을 거역한 사울 왕실은 몰락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무엘기는 다윗 왕조의 탁월성을 묘사하면서도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 또한 숨기지 않고 기술한다. 그러면서도 다윗 왕조를 지키리라는 하느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알려준다. 결국 신명기계 역사가는 사무엘기를 통해 참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는 하느님이시며,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야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구성과 간추린 내용**

사무엘기 상권 :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까지의 변천상황을 소개함	1-7장 : 사무엘 8-15장 : 사무엘과 사울 16-31장 : 사울과 다윗	사무엘기 하권 : 다윗 왕조의 역사	1-10장 : 다윗의 상승 11-20장 : 다윗의 실패 21-24장 : 부록
---	--	------------------------	--